

W_F_044

왕의 후사가 된 영의정의 아들

2016년 10월 18일, 조천읍 신촌리 허재군씨 댁, 이현정 조사.
허재군(남, 1948년생, 조천읍 신촌리)

[조사자] 왕의 후사가 된 아이 얘기 골아주십서.

[제보자] 일곱 살짜리 그 아이가, 거, 아버지가 이제 영의정인데.

[조사자] 예.

[제보자] 영의정인데, 거, 왕이, 임금이 후가 엊어.

[조사자] 응응.

[제보자] 후가, 후가 엊언 헌데 그 중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 거, 왕헌테다가 저기를 허기를. 저, 뭐꼬 아니, 그러기 전에, 이, 저, 아이가 하도 그냥 놀기를 좋아하니까, 어, 아버지가 입궐을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 냈는데, 좁쌀 한 되를 주면서.

“너는 오늘 놀지 말고 좁쌀 이거를 전부 숫자를 세 놔라.”

는 거야, 게, 이 리터, 지금 말하자면 이 리터짜리, 이 리터짜리 좁쌀 한 되를 주면서

“이거를 전부 오널 숫자를 다 세 놔라.”

게 이걸 세다 보면 하루종일 해도 다 못 셀 거라고 아부지는 생각을 헌 거여. 그래가지구 허니까

“예, 걱정마십서. 다 해 놓겠습니다.”

해가지고 입궐을 헷어, 입궐해가지고 퇴궐해서 딱 왕 보니까, 애가 막 그냥 신나게 노는 거야, 그냥 애덜하고, 그 이제.

“아무 거야, 너 집으로 와 봐라.”

해가지고 가니깐, 아부지한테 딱 끌려앗아가지고는.

“내가 오널 좁쌀을 줬는데, 그걸 숫자 세라고 허니까 다 셨느냐?”

“예, 거 뭐 시간 얼마 안 걸려가지고 다 세놨습니다.” 허는 거라, 어 이게 이게, 희한헌 일이거든?

“게, 멧 방울이더냐?”

“아 아무 방울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숫자를 어떻게 셨느냐?”

“아, 그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가? 거 푼쳇저울.”

푼쳇저울이라면은 이 약 저울이에요 이 으만한 거, 푸쳇저울로 멧 방울 딱딱 세 놔가지고 이거를 딱 떠가지고.

[조사자] 아, 예 떠가지고.

[제보자] 응

“떠가지구 이거 한 번 뜨면 멧 개 멧 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세니까 금방 셨습니다. 허니까 뭐 그렇게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허니까는, ‘아, 이놈으 자식이 도대체 응? 이 나중에는 이놈이 뭐가 될라고 이 러는고?’ 겐 했더니, 아 어느 날 허루는 인제, 아버지가 입궐을 했다가 저 퇴궐을 해서 와서 그냥 머리에 다가 띠해서 짜메가지고, 누워가지고 입궐도 안 허고 그냥, 막 그냥 고민을 허면서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덜이.

“아, 아버님 에 에, 궐 안에서 무신 일이 있습네까? 뭐에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습네까?”

“너, 너, 저 쪼메난 놈한테 내가 얘기를 해 봐야 무신 소용이 있겠느냐? 가서 놀든지 뭐 허든지, 저기 허라.”고.

[조사자] 귀찮으난 설르라 가라, 경 했구나.

[제보자] 귀찮으니까, 게도 얘가 갔다 또 들어와가지구.

“아버지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하도 졸라대니까. ‘아이고, 내가 아래도 죽을 거, 저래도 죽을 거, 게도 아덜한 테 말이라도 해 보고 나중에 죽든지 살든지 해야지.’ 해서, 아들한테 허는 얘기가, 세상에 새끼 벤 주메는 있어도 새끼 벤 우메는 엊다 이게. 우메라믄은 수놈 말이고, 좌메라믄은 암놈 말이거든?

게, 새끼 벤 주메는 있어도 새끼 벤 우메는 엊어가, 인제 흄, 없는데. 중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왕한테다가.

“새끼 벤 우메를 구해 와라, 거 새끼 벤 우메 말 혼 필을 이제, 저기 해 놔라.”

이렇게 해서 허니까 왕이 임금이 대신들 앞이서 이러이렇게 아까 말허듯이.

“새끼 벤 우메를 이제, 마련해노라니, 이거를 구헐 방법이 없느냐? 영의정이 알아서 가가지고 이거를 제기를 해 놓으시오.”

[조사자] 왕이?

[제보자] 응, 게서 허니까, 아이 거는 왕도 두령청 저, 임금 저, 저, 영의정도 들엉 보니 기가 막힌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신들한티 나도 모르는 거를 대신들한티 이거, 저기를 허라 혈 수도 없는 일이고, 이 노릇을 어떻게 허문 좋느냐?”

이거여. 경 행 아버지가.

“이거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해가지고 입궐을 못하고 있다.”

“아이고 아버지, 뭐 그걸로 그렇게 고민을 험니까? 그거 그렇게 고민헐 거 아닙니다.”

“왜 너한테 방법이 있냐?”

“예, 있습네다.”

“어떤 방법이냐?”

“내일 아버지가 입궐하는 시간에 아버지는 입궐을 허지 말고, 제가 아버지, 아버지 대신 입궐을 허겠습니다. 아버지 대신으로. 어쨌던 내가 가서 죽으면 아버지가 죽음이나, 이게 제기 안 되면은 뭐, 예, 죽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일단 제가 입궐을 하겠습니다.”

“그럼은 그렇게 해라.”

해서 이렇게 다음 날 아침에 이에, 꼬마 아이가 거, 입궐을 헌 거여. 대신덜 딱 있는데, 제일 나중에야 이 꼬마 아이가 들어가 가지고, 왕 앞에다가 딱 꿀련 큰 절을 올려 가지고 고개를 안 드는 거여, 그러니까 왕이 허는 얘기가

“너는 누구냐? 쪼메난 어린 놈이 어째서 여기를 왔느냐?”

헨 허니까, 인제, 그, 꼬마 아이가 고개를 안 들고 이렇게 숙여가지구.

“예, 저는 인제, 영의정 아무가이 자제분 된다.”

“어째서 흄, 아버지가 안 오구 니가 이, 이제 왔느냐?”

“예, 저희 아버지는 지금 얘기를 베가지구, 애깃배를 맞좌가지구 올 수가 없습네다.”

“아니, 이놈아! 말같은 얘기를 해라, 말같은 얘기를 해라. 너의 어머니가 애깃배를 맞춰서 못 온다는은 어, 말이 되지만은 아버지가 애깃배, 저, 임신을 해가지구 애깃배를 맞좌서 못 온다는 거 말이 되느냐?”

하니깐 아, 얘기 허는 말이 이제, 되받아쳐서 허는 말이.

“세상에 새끼 벤 주메는 있어도, 새끼 벤 우메가 있을 수가 있습네까? 있을 수가 있습네까?”

해서 그 거기다가 마침 그, 중국 사신이 거기.

[조사자] 거기 있었구나예?

[제보자] 응, 거기 있었는데. 그니깐 게난 그 중국 어데서 그거 저기 허는 것도 없는 것이 뻔한 건데, ‘과연 이 나라에 이럴 만한 인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그, 지금 말하자면 지금 말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왕헌테다가 저길 헌 건데. 그래서 그 애가 거를 딱 얘기를 허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 이거 이거에 대해서 반문헐 제기가 못되거든? 아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다음날, 다음날을 그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구. 다음날은 갈 적이 얘가 다시 또 아버지 대신 또 간 거여.

[조사자] 응.

[제보자] 다시 입궐을 해가지고, 인제 계란을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거, 임금 자리에 다
가 그거 계란을 탁 허게 놔가지고, 자기가 거기 가서 딱 품어서 앗은 거야. 탁
품어서 앗아가지고 임금이 이제 올 시간까지 거기. 게서 이제 대신들이 짹 있는
데 얘가 거기 강 탁 저기 허니까 앗아 있는데 에, 저

“상감마마, 입시오!”

이렇게 핸 헐 때 야이가 이제, 그 으자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푸리락 푸
득푸득 허면서 .

“꼬끼오 꼭!”

이런 거여.

[조사자] 무사마씨?

[제보자] 거 얘길 들어봐.

“꼬끼오 꼭!”

이러니까, 인제, 그러면서 그 아이가 거 대신덜 앞에 허는 얘기가 여러 ‘대신
덜은 암탁 소용밖이 안 됨다.’ 이거여.

[조사자] 암탉?

[제보자] 암탁 역혈밖에 안 됨다 이거야.

[조사자] 아, 암탉 수준밖에 안 됨다.

[제보자] 응응, 암탁 수준밖에 안 됨다. 어, 적어도 이 조선에 남자고 나라를 정치를 해나
갈 정도면은, 그만한 머리를 가지고, 지혜를 가져야. 어? 어, 이런 제기가 들어오
면은 응대를 해야 헐 건데 그것조차 하나 제대로 응대를 못 허니야. 암탁 소용밖
이 안 됨다 이거야. 응, 그래가지구, 그 아이가 그 임금이 후가 없으니까. 후가
없으니까, 상당히 그, 머리 쓰는 거고, 저기가 이 유능허니까 가이가 거, 그 임금
대신 후임으로.

[조사자] 후임으로 딱.

[제보자] 어,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잡고, 대신들을 다루고 정치를 했다.

[조사자]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거든 그것도 할아버지한테 들으셨어요?

[제보자] 들었주, 그럼 것도.

[조사자] 아, 그렇구나예?

[제보자] 응.

[조사자] 겐 기억 진짜 잘 하셨다예?

[제보자] (웃음) 아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덜 얘기헐 때 내가 귀에 들어오는 말이 잇곡, 안
들어오는 말이 잇고, 뭐뭐 그런 거겠지 뭐.

[조사자] 그럼 그 얘기를 한 번, 한 번만 해 주셨마씨, 계속?

[제보자] 한 번, 한 번 들은 거주 거 뭐.

[조사자] 한 번?

[제보자] 그거 뭐, 그 그, 할아버지가 무슨 헤였던 얘기 다시 얘기하곡 그래? 훈 번.

[조사자] 지금 말하는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라?

[제보자] 아니, 아니.

[조사자] 그러면?

[제보자] 동네 할아버지.

[조사자] 아, 동네 할아버지.

[제보자] 어, 거 동네 할아버지 가 구학문이 많이 들어 있는 분이라.

[조사자] 예.

[제보자] 건디 거를 써 먹지를 않에. 이 동네서, 이, 제일 구학문이 많이 들어있는데. 돌아 가신지 훈 멧 년 되긴 했는데, 또 그 분, 그 할아버지가 목수라 목수.

[조사자] 목수 하시는 분이었구나예?

[제보자] 어, 목수 허시는 분인디. 원래 말이 무거워가지고. 그, 할아버지 형님 집에 그 우 리가 밧거리에 살아낫거든? 게서 그 형님 집에 옛날 그 초가집 걷어가지고 쓰레 트를 한참 일 때에, 그 할아버지가 어, 쓰레트를 형님 집에 와서 쓰레트를 일어 주면서도 대패를 이렇게 갈면서도, 옆에 나도 앗아 잇곡, 거 할아버지 형님도 앗 아 잇곡 허는데. 대패를, 대패가 무끼니깐, 대팻날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봐 선 날이 무께 베니깐. 거 쪼끔만 사름 곁으믄 나보고라두 저 수돗가에 가서 물 좀 떠다달라고 혈 거 아니?

[조사자] 예.

[제보자] 게, 그런, 그런 것도 말을 안 헤가도 당신냥으로 그냥 수돗가에 가가지구, 거 수 돛가에서 그냥, 숯돌 놔가지고 거. (숯돌 가는 시늉을 한다)

[조사자] 본인이?

[제보자] 응.

[조사자] 같고?

[제보자] 응. 그럴, 그렇게 허니깐, 그 형님이 허는 말이
“저렇게도 말이 무겁는가? 거 나도 앗아 있고, 애도 앗아 있고, 느도 앗아 있고 헌 디, 거 물 좀 떠다주伦 허면은 웬 거를.”

- 핵심어 : 왕, 후사, 영의정, 중국 사신, 새끼 벤 우메